

문화콘텐츠로서 대중소설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1950년대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강옥희**

1. 소설에서 영화로
2. 1950년대 대중소설과 영화
3. 문화콘텐츠로서 50년대 대중소설의 특성
4.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50년대 영화의 원작으로 쓰였던 대중소설을 대상으로 원작과 전환매체인 영화의 서사구성 원리를 분석하여 매체간의 상이성과 공통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50년대의 대중소설 중 영화화 되어 사랑을 받았던 작품과 영화를 비교분석하여, 어떤 점이 대중소설을 영화라는 매체로 전환시킨 요인이 되었는지,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로서 대중소설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1950년대의 대표적 대중소설인 정비석의 『자유부인』, 김래성의 『인생화보』, 『애인』, 『실락원의 별』, 박계주의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438)

** 상명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순애보』, 방인근의 『화심』으로 영화의 원작이 된 작품들이며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도 대중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 중 현재 필름이 남아있는 것은 〈자유부인〉, 〈순애보〉, 〈화심〉 세편인데 영화가 남아있는 작품들은 영화와 작품 시나리오를 함께 비교 분석했고, 다른 작품들은 원작과 시나리오의 실증적인 정리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모티프의 상관성, 대중친화적인 요소 등 원 장르와 OSMU 복합콘텐츠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살피고, 문화콘텐츠로서 대중소설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 중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소설연재 - 연극 - 영화로의 매체 전환을 통해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보여준 OSMU (One Source Multi Use)이다. 〈자유부인〉은 이후 대중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950년대 대중소설 텍스트가 영화로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대중성이며 이 대중성은 대중의 욕망과 당대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주제어: 1950년대 대중소설, 문화콘텐츠, OSMU, 자유부인, 순애보, 화심, 인생화보, 애인, 실낙원의 별, 멜로드라마, 대중성)

1. 소설에서 영화로

포스트모던 사회가 도래하면서 그동안 정전의 권위에 눌러 있던 대중소설은 본격 문학과 서로의 벽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B급 정서로 치부되어 인정받지 못했던 대중문화 역시 이제는 문화의 중요한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시절 대중의 힘든 삶을 위로했던 대중소설은 기술복제 시대의 대표적 예술인 영화에 대중의 사랑을 넘겨주었고,

영화는 소설을 대신하여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매김 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시나 희곡 같은 문학 장르는 대중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소설, 특히 대중소설은 여전히 영화, 연극, 드라마 등의 원천 콘텐츠로 기능하고 있다. 영화의 원천 콘텐츠로서 대중소설은 식민지시기에는 영화와 결합하여 영화소설이라는 장르를 만들었고, 실제 영화의 원작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이 시기 대중소설과 영화의 만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1950년대의 대중소설 중 영화로 만들어져 사랑을 받았던 작품과 영화를 비교분석하여, 어떤 요인이 당대인들이 즐겨보았던 대중소설을 영화라는 매체로 전환시킨 요인이 되는지,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로서 대중소설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문학적 정진과 엄숙성을 강조하던 한국문학사에서 대중소설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문학사의 변방에 놓여 있던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기 이후 현재까지의 대중소설에는 고평가된 문학 정전들보다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과 일상인의 생활과 삶에 대한 감각이 드러나 있다. 대중소설의 이러한 특징은 영화 장르의 대중적 확산과 함께 『승방비곡』, 『마도의 항불』, 『짚레꽃』, 『마인』 등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1930년대 대중소설의 영화화에 영향을 미쳤다. 영화원작으로서 대중소설의 인기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어져 50년대 발표된 많은 작품이 영화로 제작되었고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자유부인』, 『청춘극장』, 『애인』, 『실락원의 별』같은 대중소설은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이 시기 대중소설이 영화로 제작되어 소비된 이유는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대중소설의 서사에 당대 대중들을 공감하게 한 정서나 그들의 바람이 투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당시의 대중소설은 전쟁 후 팍팍해진 현실을 잊고 지리멸렬한 현실에서

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을 이루어주고 삶을 위로하는 대중 위안의 적합한 기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중소설이 당시 영화의 원천콘텐츠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소설이 지닌 이러한 성격과 함께 해방 이후의 영화산업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50년대 한국 영화는 일천한 영화 역사에서 질적, 양적 중흥기를 맞았다. 한국영화 육성을 위해 실시한 입장세 면제 같은 제도적인 지원과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으로 1955년부터 1961년까지 한국 영화는 경이적으로 발전, 많은 작품을 제작하기에 이른다. 당시 제작된 극영화는 1954년 12편, 1955년 14편, 1956년 25편, 1957년 40편, 1958년 74편, 1959년 112편, 1960년 85편, 1961년 81편이라는 엄청난 물량이었다.¹⁾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영화 제작자들은 다양한 소재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여러 편의 대중소설이 영화의 원천콘텐츠로 기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영화콘텐츠의 주된 원천이었던 대중소설과 그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면모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대중문화 콘텐츠로서 대중소설의 기능과 역할을 살피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대중소설의 어떠한 점이 문화콘텐츠로서 매력 있는 소재로 작용했는지 또 어떠한 매체적인 변환을 통해 영화가 원작과는 다른 감동과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지를 살펴보고, 이시기 영화를 통해 전후 대중문화의 변화과정과 당대의 사회적 변화가 대중소설에 끼친 영향 등을 다각도로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1950년대의 대표적 대중소

1) 이 시기에 나온 영화에 대한 통계는 그간 이영일의 『한국영화 전사』를 토대로 한 기록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당시의 신문을 통해 통계자료를 내본 결과 이영일의 한국영화 전사에서 밝히고 있는 편수와 실제 편수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상영된 극영화의 통계에 관한 자료는 강옥희, 「소설 『순애보』와 영화 〈순애보〉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44, 한민족 문화학회, 2013.10, 230쪽 참조.

설인 『자유부인』(정비석 원작, 한형모 감독(1956)), 『애인』(김래성 원작, 한형모 감독(1956)), 『실락원의 별』(김래성 원작, 홍성기(1957)), 『인생화보』(김래성 원작, 이창근 감독(1957)), 『순애보』(박계주 원작, 한형모(1957)), 한형모 『화심』(방인근 원작, 신경균 감독(1959))등이다.²⁾ 이 작품들 중 현재까지 필름이 남아있는 1950년대 영화는 <자유부인>, <순애보>, <화심> 세 편으로 영화가 남아있는 작품들은 영화와 작품의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다른 작품들은 원작과 시나리오의 실증적인 정리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모티프의 상관성, 대중친화적인 요소 등 원 장르와 OSMU 복합콘텐츠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살피고, 문화콘텐츠로서 대중소설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 영화로 전환된 대중소설들은 내용의 큰 변화 없이 원작의 서사구조를 따라가면서 약간씩의 재구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들은 50년대 이후 TV가 보급되면서 영화 외의 드라마 장르로 변화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³⁾

2) 1950년대 대표적 대중소설인 김래성의 『청춘극장』, 박계주의 『별아 내 가슴에』, 정비석의 『산유화』는 본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1952년부터 연재된 김래성의 『청춘극장』은 소설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는데 홍성기 감독의 연출(1959)로 영화화되어 1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고(『풍성했던 영화제작/ 100편을 넘었으나 우수작은 희귀/ 질적인 향상을 위한 진통』, 『조선일보』, 1959.12.16. 4면), 박계주의 『별아 내 가슴에』 역시 홍성기 감독의 연출(1957)로 제작되어 13만 7천명을 동원한 1958년의 최대 히트작이었다. 그러나 5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나 시나리오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현재 남아 있는 60년대의 영화와 시나리오로는 50년대의 정서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자료라 판단되어 연구대상에서 제외를 했다. 반면, 30년대 작품인 『순애보』와 『화심』을 연구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이 작품들이 30년대에 발표되어 공전의 히트를 했고, 1950년대에도 꾸준히 출판되어 사랑을 받았으며(『순애보』 1954년, 『화심』 1950) 그것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화되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많은 대중소설이 있었음에도 이 작품들이 영화화 된 것은 30년대 작품이지만 여전히 당시 대중에게 소구하는 지점이 있었고, 이것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통해 당대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작품 분석의 텍스트로 사용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자유부인』(정음사, 1954), 『순애보』(성문사, 1957), 『화심』(한성도서주식회사, 1950), 『인생화보』(청운사, 1954), 『애인』, 『실락원의 별』(삼성출판사, 1983).

TV 드라마의 경우 대부분 단막극이나 일일극의 형태로 당대에 맞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2. 1950년대의 대중소설과 영화

2-1. 정비석의 『자유부인』과 박계주의 『순애보』

정비석과 김래성은 50년대 대중소설가로 대중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작가이다.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50년대 영화화되어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이며, 김래성은 『청춘극장』을 비롯한 여러 편의 대중소설로 50년대를 풍미했던 작가이다.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 중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1950년대 문단과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자유부인』은 전후의 양풍과 함께 불어 닥친 개인, 가정, 사회모습의 변화, 새로운 성도덕의 표출 등 텍스트 내, 외적으로 많은 논쟁과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냈던 작품이다. 신문연재소설로서 『자유부인』은 연재 시 이미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고, 연재가 채 끝나기 전에 출간된 단행본은 초판규모가 500부에서 1000부이던 시절 출판 당일 3000부가 매진된 기록을 가진 베스트셀러였다.⁴⁾ 연재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45일간 상영되며 히트했고, 서울 관객만 10만 8천명에 7천만원의 수익을 거둔 기록을 세웠으

3) 박계주의 『순애보』, 김래성의 『인생화보』 등이 대표적이다. 필름이 남아 있는 〈자유부인〉, 〈순애보〉, 〈화심〉은 영화와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그 외 작품은 시나리오를 비교하기로 한다. 소설과 영화를 비교하는 서술과정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소설은 『』, 영화나 시나리오는 〈 〉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4) 양평, 『베스트셀러 이야기』, 우석, 1985, 14쪽.

며, 이후 수많은 대중소설 작품을 원작으로 한 문예영화 붐을 일으킨 작품이 되었다.⁵⁾

김래성의 작품은 문학사에서 잊혀 졌거나 평가가 유보되었던 여타 대중작가의 작품과 달리 60년대, 7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읽혔고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80년대까지도 작품의 전집이 발간될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지니고 있었다. 『인생화보』는 1990년대, 2000년대에도 TV드라마로 제작되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⁶⁾

김래성의 작품은 대중과 영화제작자의 사랑을 동시에 받았는데, 그중에서 『애인』(『경향신문』, 1954.10.1 ~ 1955.6.30.), 『실락원의 별』(『경향신문』, 1956.6.1 ~ 1957.4.19.)은 1950년대 발표되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고, 영화로 제작되어 빅히트를 기록했던 작품으로 『자유부인』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다. 정비석이 주로 인간의 애욕과 근원적인 욕망의 성찰에 집중한 작가라면 김래성은 전쟁 이후 인간의 삶에 대한 계몽적 성찰과 애정의 윤리, 진실한 사랑에 대한 낭만적인 판타지의 실현, 일그러진 모성 신화에 대한 비판을 주로 다루고 있다.

박계주의 『순애보』와 방인근의 『화심』⁷⁾은 1930년대 발표된 작품이나 50년대 제작된 영상자료가 남아있는 작품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5) 강옥희, 「대중문화 콘텐츠로서 정비석의 『자유부인』 연구」, 반교어문학회, 2013. 2, 320쪽. 『자유부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을 참조.

6) 『인생화보』는 MBC TV의 미니시리즈로(1987.11.9 ~ 1987.12.8.) KBS 1의 『TV소설 인생화보』라는 아침드라마(2002.08.05. ~ 2003.04.19.)로 방송되었다. 『인생화보』가 아침 드라마로 환영을 받았던 이유는 원작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갈등이 연속적인 일일드라마를 만드는데 적합했기 때문이다. 각색된 『인생화보』는 원작 소설과는 달리 다른 복잡한 갈등과 애립과 형식이 결혼을 하여 두 집안이 화해한다는 원작과는 다소 다른 결말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갈등 끝에 가족의 화합이나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TV소설이라는 KBS 아침드라마의 성격에 부합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7) 방인근의 『화심』 역시 1930년대 발표되었으나 1950년대에 재출간(한성도서주식회사, 1950)되었던 작품이며 영화로도 만들어진 작품이다.

다. 소설 『순애보』는 주인공 문선과 명희의 종교보다 더 거룩한 숭고한 사랑을 다룬 작품이나 영화 〈순애보〉는 소설과 달리 종교적인 구원의 문제에 더 깊이 경사되어 원작 소설의 재미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정비석의 〈자유부인〉보다 세련된 기법과 새로운 문물에 대한 보여주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작중의 주인공인 인순을 에어 걸(오늘날의 스텐더디스)이라는 참신한 직업을 가지고 세계를 일주하는 인물로 설정하여, 영상매체인 영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제 도시 홍콩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화려한 볼거리로 대중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였다.⁸⁾

2-2. 방인근의 『화심』

사랑에 실패한 기생 화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화심〉은 〈자유부인〉이나 〈순애보〉같은 화려하고 감각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못했지만 역시 50년대 문화의 일면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30년대 『방랑의 가인』으로 대중문학계를 풍미했던 작가 방인근의 소설 『화심』은 순진한 처녀 금희가 사랑에 실패하고 화심이라는 기생이 되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지극히 통속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넉넉한 살림을 꾸리고 있는 낙원동 사는 과부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는 아들 영재와 동경에서 여자대학을 다니는 금숙, 어려서 부모를 잃고 보육학교를 다니는 금희와 생활의 곤궁함 없이 살고 있다. 더운 여름 금숙과 금희는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난 동경유학생 최상필과 원산으로 피서를 간다. 상필은 금희에게 호감을 보이고 동경으로 돌아

8) 소설과 영화 순애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강옥희, 「소설 『순애보』와 영화 〈순애보〉 연구」, 『한민족 문화연구』 44, 2013.10.

가 편지 왕래를 하며 결혼을 약속하지만 동경에서 돌아온 상필은 금속과의 결혼을 공표하고 금희는 상심한다. 결혼 전날 밤 상필은 금속과의 결혼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금희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으나, 금희는 그러한 행동의 부도덕함을 알리고 상필을 설득한 후 금속의 결혼식 날 집을 떠나 우연히 주화를 만난다. 주화는 금희의 친구이자 오빠 영재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성으로 영재에게 호감을 가졌고 영재는 주화에게 모든 사랑을 바친다. 그러나 주화는 고지식한 영재 대신 같은 사무실의 준풍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데 둘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상심한 영재는 종적을 감춘다.

한편, 준풍의 아이를 가진 주화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준풍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서로 사연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의지하며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다 극단 일월좌의 여배우가 된다. 유산 후 몸이 쇠약해진 주화 때문에 돈 걱정을 하던 금희는 그녀를 좋아하는 극단주 조운세의 도움을 받고, 연극 춘희의 주인공으로 성공을 거둬 유명 여배우가 된다. 조운세는 금희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 거절을 당하자 금희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금희는 그의 돈을 갚고 주화의 치료를 위해 기생이 된다. 장안의 유명한 기생이 된 금희는 같이 연극을 하던 명호를 만난다. 명호는 사랑을 고백하나 기생이라는 처지를 알고 난 후 떠난다. 명호가 떠난 후 삶의 낙을 잃은 금희는 죽음을 결심하고 주화와 금강산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오빠 영재를 만난 후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맞는다.

『화심』은 사랑의 상처를 가진 불우한 여성이 기생이 되었으나 사랑에 실패한 후 죽음을 택한 비련의 여인을 다룬 전형적인 대중소설이다. 영화 〈화심〉은 신경균 감독의 연출로 1958년 동보영화사에서 제작하였으며 김동원, 양미희, 박암, 도금봉, 이민자, 김승호가 출연하였다. “사랑과

생활에 몰다 지쳐 슬어저가는 여인비극을 그린 전형적 방인근 소설의 영화화⁹⁾라는 평가를 받은 이 작품은 총 8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설과 달리 인물이나 직업 사건 등이 원작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영화의 기본 서사는 기생이 된 화심의 이야기이나 주된 사건이나 갈등이 소설과 다르게 전개된다. 금희와 의대생 상필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금희는 보육학교를 졸업하고 고등 간호학교에 갈 의지를 보이며 상필과의 미래를 꿈꾼다. 그러나 상필을 좋아하는 언니 금속의 계략으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상필과 금속이 결혼하는 날 집을 떠난다. 한편 금희의 오빠이자 선원인 영재는 주화를 사랑하지만 주화는 병든 어머니 때문에 전무에게 금전적인 유혹을 당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영재는 그녀에게 배신을 느끼고 사라진다. 영재의 아이를 임신한 채 회사에서 쫓겨난 주화는 기생이 되고 집을 나와 방황하던 금희를 만나 같이 살게 된다. 생계를 책임졌던 주화가 늑막염에 걸리자 금희는 주화를 대신해 기생 화심이 되어 주화와 아이를 부양하고 우연히 상필을 만나게 된다. 상필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화심은 서울로 떠난다. 서울에서 오빠 영재를 만나고 폐병에 걸려 임종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화심이었던 금희는 주화가 영재를 사랑하고 있으니 용서해주라는 것과 상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고 죽음에 이른다.

소설 『화심』과 영화 〈화심〉의 서사에서 가장 다른 점은 소설 속의 명호가 영화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소설 속의 금희는 주화와 함께 극단의 여배우가 되고 배역 상 상대인 명호가 등장하지만 영화에서 금희는 간호부였다가 기생이 되는 인물로 설정된 까닭에 명호와의 이야기는 제외된 것이다. 또한 소설에서 금희와 상필을 중심

9) 『신영화 전형적인 방인근 소설의 영화화 / 이민자가 좋은 『화심』, 『한국일보』, 1958.10.27, 4면

으로 한 극적 갈등이 긴밀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작품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명호와의 에피소드 역시 설득력 없이 진행된 까닭에 영화는 명호를 등장시키지 않은 채 금희와 상필의 갈등을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영화 역시 상필과 금희의 관계를 치밀하게 그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필과 금숙의 갈등 그리고 오빠 영재가 사랑하는 주화와 주화 주변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타이틀』은 화심이나, 화심이 중심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은 각종 지류담을 펼쳐 보이기 위한 것인데, 조금은 이색적인 신파영화가 되기에는 진행이 너무 퇴폐조가 몸에 젖은 이민자쯤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또 하나의 구파영화”¹⁰⁾라는 평을 받았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영화는 화심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필과 금숙, 주화와 영재의 갈등을 주로 다루며 “화심이 중심이 되지 않은 각종 지류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소설보다는 덜하지만 어정정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2-3. 김래성의 『인생화보』, 『애인』, 『실락원의 별』

『인생화보』는 전쟁으로 잃어버린 돈가방으로 인해 뒤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사립학교 교장이었던 신용석은 교육자로서 동료들의 신망을 받고 교육에 일생을 바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온 인물이다. 그러나 해방과 전쟁 등 격동하는 세기적 혼란 속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피난지 국제시장에서 옷장사를 시작한다. 신교장은 이재에 밝은 작은 아들 형식과 함께 나날이 재산을 불려 동신무역을 설립하고 오늘의 행복을 중시하는 인물이 된다. 신교장의 성공의 이면은 누구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는데 부산으

10) 『신영화 전형적인 방인근 소설의 영화화 / 이민자가 좋은 『화심』』, 앞의 기사.

로 피난하는 도중 마포강변에서 주웠던 돈가방이 사업성공의 토대가 된 것이 그것이다.

애림은 약혼자와 미국 유학을 앞둔 영문과 여대생이었다. 6.25 전 자수성가하여 방직공장을 하던 조부는 9.28 수복 이후 중공군이 참전하자 공장과 가재도구를 정리하여 전 재산인 1억 원 정도의 현금을 미화와 금붙이로 바꾸어 애림에게 맡겼으나 피난의 외중에 마포강변에서 가방을 잃어버린다. 그 충격으로 조부는 세상을 떠나고 애림은 부산에서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해 갖은 직업을 전전하며 고생을 한다. 그리고 우연히 신용석의 큰아들 형우의 돈가방을 훔치게 된다. 후에 애림은 형우와 친해져 그녀의 사정을 말하는데 형우는 피난길에 주웠던 돈가방이 애림이 가족의 것이었음을 알고 괴로움에 빠진다. 한편, 형우의 동생 형식은 애림을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나 애림은 형우에게 마음을 둔다.

형우의 친구이자 정치에 마음을 두고 있는 김달호는 돈을 얻기 위해 형우의 동생 형욱을 유혹, 유린하고 흥신소 사장 윤홍덕과 손을 잡고 형식 일가의 비밀을 캐기 시작한다. 형우는 가족에게 애림이 돈가방의 주인임을 말하지 않고 돈가방을 돌려줄 것을 제안하지만 형식과 신사장은 가방의 습득자가 신사장 일가가 아니라 하고 애림을 도와주기로 한다. 형우는 아버지의 상황을 얘기하고 애림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으나 하지 못하고, 애림은 우연히 흥신소 소장인 윤홍덕을 통해 가방이 신형식 일가의 손에 있었던 것과 그간의 일을 알게 된다. 애림이 가방의 주인이었음을 몰랐던 형식은 돈가방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윤소장이 동신무역의 추악한 과거를 신문을 통해 알리겠다는 말에 숨겨두었던 권총으로 그를 죽이고, 그 비밀을 빌미로 동생을 유린한 김달호를 죽인 후 애림과 아버지를 만난다. 애림이 돈가방의 주인임을 알게 된 형식은 애림에게는 그간의 애정이 진심이었음을 말하고 도망을 간다. 그 시간 형

우의 집에서는 화재가 나고 형우를 좋아한 애림은 형우의 진심을 확인하고 헤어진다.

『인생화보』의 기본 서사는 돈가방을 잃어버린 애림일가의 비참한 생활과 그것을 주운 신형식 일가의 뒤바뀐 운명이 가져온 비극이다. 가난하지만 진심이 있었던 교육자 신용석 교장 일가가 피난의 와중에 주운 돈가방을 경제적 토대로 삼아 전쟁기임을 잊을 정도로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동안 고생을 모르고 풍요하게 살았던 애림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양갈보소리를 들으며 일을 하고 급기야 돈가방을 훔치고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억척스러운 생활인으로 변모하는 아이러니한 삶의 변화를 보여준다. 거기에 각각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보태져 3권으로 출간되었을 만큼 방대한 분량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개된다. 그중에서 소설가 현암 신형우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공부할 때 만난 서경주와의 이야기와 그들 사이에서 난 아들과 전쟁으로 인해 서로 헤어지고 만나는 내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형우와 함께 지내는 눈먼 한흑조 노인과 형우를 좋아하는 남숙이 부녀지간이었다는 그들의 사연이 장황하게 한축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애림과 형우의 동생 형식, 정치를 꿈꾸는 부랑자 김달호와 형욱, 형식일가의 비밀을 캐는 윤홍덕과 기타인물들의 이야기가 너무 장황하게 서술되어 정작 운명이 뒤바뀐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설득력 없이 진행되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영화 〈인생화보〉는 이태환, 서기영 각색, 이창근 감독의 연출로 1956년에 개봉되었다. 현재 영화의 필름이 남아있지 않아 시나리오를 통해 이야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총 #143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 『인생화보』는 2000년대까지도 미니시리즈나 드라마로 각색되어 사랑을 받았던 것과 달리 영화화 한 〈인생화보〉는 50년대 김래성의 다른 작품에 비

해 덜 주목을 받았고 영화 개봉 후 흥행에서도 참패를 했던 작품이다.¹¹⁾

원작(고 김내성)의 여성은 상당한 교양이 풍기는 여성이라 하는데 영화의 여성은 성격의 기교함이 보일 뿐 부자연하다. …… 노농길이 30년 전에 헤어진 애인(주중녀)와 그의 아들(김유현)을 찾는 등 여러 가지 『에피소드』속에 결국은 인과설 신봉자처럼 낙착된다. 주중녀의 내연하는 애정을 손의 『클로즈·업』으로 표현하는 등 촬영을 겸한 감독 전창근의 노력은 눈에 띠이나, 연출력의 빈약함을 어떻게 덮을수도 없는 것 같다. …… 『상승』, 『파리의 바라드』의 곡조 일부를 삽입한 음악(김동진)은 적절한 분위기를 이룬 건 아니었지만, 꽤 경쾌하였다. 인생의 무슨 의미 같은 것을 발견해 볼 수는 도저히 없는 영화이지만 얽히고 설킨 복잡한 줄거리가 인생의 오락이 될 수 있는 영화다.¹²⁾

〈인생화보〉는 개봉 당시 “혼란과 궁핍이 넘치는 수라장 속에서도 거지 없는 인간성을 발굴하여 고결한 윤리관을 시각화하기에 노력”¹³⁾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당대의 다른 평가에 따르면 성격화의 결함과 연출력의 빈약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명료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소설을 영화화할 때 서사는 매우 간결해진다.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결합되면 두 시간여의 러닝타임을 가진 영화에서 이야기가 산만해지기 때문이다. 『인생화보』의 원작은 주인공 에립일가와 형식일가 구성원의 이야기가 너무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영화의 시나리오를 보면 책이나 영화의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총

11) 1958년 당시 개봉한 국산영화의 손익 결산 기사를 살펴보면, 〈인생화보〉는 〈순애보〉와 더불어 2천만 환 정도의 손해를 본 것을 알 수 있다. (『국산영화는 수지가 맞나/작년에 상영된 47편의 손익 결산/ 이익본 건 3편뿐/ “과세조치 시기상조” 문교 당국, 『한국일보』, 1958.7.5, 3면) 당시 영화 제작비가 2천 5백만 환 정도 소요되었는데(『관객수·제작(수입)비·세율로 본 영화기업의 현황』, 『서울신문』, 1958.3.30, 4면) 2천만 환을 손해 보았다면 흥행에는 거의 참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2) 『[신영화] 『인생화보』 / 흥미끄는 줄거리』, 『한국일보』, 1957.6.25, 4면.

13) 『인간의 진실성을 발(발견·필자) / 인생화보』, 『경향신문』, 1967.6.24, 4면.

#143의 시나리오 안에 책속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산만하고 응집하지 못한다. 이것은 작품 속 이야기를 각색 가공하지 않은 채 영화 시나리오로 그대로 옮긴 까닭에 그냥 개연성 없이 “엷히고 설킨” 복잡한 이야기로만 남았기 때문이다.

김래성의 『애인』은 영심과 지운의 죽음을 넘어선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이다.

시내 모 중학교 졸업반이었던 지운은 어린 시절 창경원에서 우연히 만난 영심을 사랑하게 된다. 지운은 영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대신 창경원의 벚나무에 애인이라는 글자를 새겨 마음을 알리고 영심은 그에 대한 화답으로 애인이라 쓰인 편지를 주고 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창경원에서 만나기로 한 두 사람은 전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지운은 부산으로 피난을 간다. 영심은 북한에서 장질부사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해 지운과 만남이 엇갈렸고, 아버지 오교장의 제자였던 허정욱 중령의 도움으로 월남한 후 변호사 유민호의 경제적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유민호는 변호사로서,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여성과 문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도덕한 인물이다. 결혼을 목적으로 영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만 영심은 아버지를 도와준 은인으로서 또 자신이 소녀시절부터 흠모하던 인물을 그리워하며 살기 위해 사랑 없는 불행한 결혼을 자처한다. 그러나 허정욱에 의해 유민호의 부도덕함을 알게 되고 애정을 고백한 허중령과 결혼을 결심한다.

한편 부산에서 교편을 잡았던 지운은 정주와 석란이라는 두 여성을 사귀는데 환도 후 서울로 돌아온 지운은 적극적인 석란의 구애에 그녀와 결혼을 한다. 그러나 자유분방한 석란이 신혼여행 중 박준모라는 인물과 도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도 반성이 없는 것에 격분하여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낸다. 사랑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 『애인』이라는 소설을 집필하던 지운은 창경원에서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허중령과 결혼을 앞둔 영심을 만나고 두 사람은 옛날에 서로 그리워하던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지운은 영심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소설을 탈고한 후 그것을 선물하기 위해 창경원에서 만날 것을 청하고 허중령과 혼인한 영심은 며칠 고민 끝에 지운을 만나러 간다. 우연히 영심과 지운의 만남을 알게 된 유민호는 허중령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격분한 허중령은 지운과 결투를 위해 산으로 가지만 지운의 말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영심은 수면제를 사서 지운을 기다리고 마침내 만난 두 사람은 삼각산으로 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죽음을 맞는다.

〈자유부인〉을 연출한 한형모 감독과 함께 영화계를 주름 잡았던 “50~60년대 한국 멜로드라마의 거장”¹⁴⁾ 홍성기 감독의 연출로 만들어진 〈애인〉은 총 #104로 구성되어 있¹⁵⁾는데 개봉 후 큰 호평을 받았다.

전형적 현대 「멜로드라마」이야기가 복잡 다양하여 제법 재미있다. 어떤 애인들의 애사가 이야기의 중심이지만 그 주위에 명멸하는 단역군의 생태가 더욱 흥미 있다. 신혼여행중의 유부녀를 유혹하려드는 「아쁘레」, 손이 닿는 여자는 모두 짹짹거리보는 탕아. 여자대학의 연애학 교수 등 각종 기물들이 뼈아노라마처럼 엮어 내리는 풍경들은 지극히 **적. 주중녀와 작가역 남우가 이야기 줄거리의 의하여 「틴·에이저」 시절에 맺은바 철석같이 변함없는 순정을 자꾸만 상기하지만 그 순정이 어째서 그렇게 철석같아야 하는지 영화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설사 그 순정이 철석같은 것이라 해도 두 애인은 지극히 비애인적이다. 대중의 인습에

14) 김수남, 「홍성기의 멜로드라마 영화론」, 『청예논총』 12, 청주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1997, 90쪽.

15) 〈애인〉은 1956년 신신영화사에서 제작하였으며, 주중녀, 이예춘, 전택이, 노경희, 이민, 서춘광, 서월영 등이 출연하였다. 1958년 영화제작비 결산에 관한 기사를 보면 〈애인〉은 속 〈자유부인〉과 함께 수지 타산을 맞춘 영화로 나와 있다.

의하면 패륜이라고 규정해야할 이 영화의 결말이 과히 패륜도 아닌 것 같은 감을 주는 것이 이 영화가 살아난 점이라면 산점일 듯. 영화로선 지극히 복잡하지만 국산 『멜로』도 과히 절망할 바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영화. 『아쁘레』의 본질이 하나는 경쾌한 것인데 이민이가 약간 경쾌하다.¹⁶⁾

위의 감상평에서 알 수 있듯이 〈애인〉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작품이 지니고 있는 멜로드라마적 성격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봉 당시 “『멜로드라마』로서의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¹⁷⁾작품이라거나, “약간의 신파조를 띠고 있으나 이것을 영화적으로 처리해 나간 홍성기 씨의 견고한 수법과 연기진의 호흡이 대체로 조화를 이룸으로 해서 두 시간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오락영화”¹⁸⁾라는 작가의 오락적 연출과 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면 이 작품이 지닌 특성을 대중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한다. 물론 이 작품은 지운과 영심의 순정을 영화가 제대로 그리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동시에 안고는 있지만 사랑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마지막 장면만으로도 대중은 이 작품의 메시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열광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락원의 별』 1956년부터 9개월간 경향신문에 연재되었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소설가 강석운은 아내 옥영과의 사이에 4남매를 둔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며 소설가로서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어느 날 석운은 자기 소설의 열렬한 애독자인 영문과 여대생 고영림을 만나면서 그녀의 열렬한 구애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든다. 영림은 강석운 작품의 열렬한 애독자로 그에게 작품의 감상문을 보내기도 하고,

16) 「국산 『멜로』에도 희망 / 『애인』이 가능성을 증명」, 『한국일보』, 1956.10.4, 4면.

17) 「신영화 소개, 『애인』」, 『경향신문』, 1956.10.10, 4면.

18) 「오락영화로 합격 [스타일] / 『애인』 : 이봉래」, 『한국일보』, 1956.10.7, 2면.

작가로서 좋아했는데, 그를 만난 것은 난봉군 남편과 사는 병든 올케가 과거에 플라토닉하게 사랑했던 인물이 강석운이었음을 알고 올케 혜련과 그를 만나게 해줄 요량 때문이었다. 석운은 우연히 만난 영림에게서 젊은 날의 아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자극에 생기를 느끼지만 나중에는 영림에게 이성으로서 강렬한 욕망을 느끼고 사랑에 빠진다.

남편을 하늘처럼 믿고 존경하던 아내 옥영은 남편에게 실망하지만 현 모양처로서 남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린다. 석운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 된 것이었음을 말하고 용서를 구한 후 돌아올 것을 약속하지만, 가정과 아이들을 버리고 영림과 함께 경주로 사랑의 도피행을 떠난다. 남편의 행동에 실망한 옥영은 남편에 대한 반발, 모성이나 도덕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간다. 영림과 애정의 도피를 한 석운은 어린 아들이 가출한 엄마를 찾아 헤매다 폐렴에 걸리고 아이들이 신문에 낸 편지를 본 후 죄책감에 시달린다. 영림은 그런 석운을 보면서 정열의 환멸이 오기 전에 석운을 떠날 것을 결심한다. 영림이 떠난 후 석운은 아내 옥영에게 용서를 구하고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 집으로 돌아간다.

영화 〈실락원의 별〉은 1957년 홍성기 감독의 연출로 동도영화사에서 전편이 제작되었고 1958년에는 후편이 제작되었다. 〈실락원의 별〉 전편은 1957년 〈순애보〉와 함께 우수영화 베스트 5선에도 뽑혔으며, 57년에 개봉된 47편중 〈청춘쌍곡선〉, 〈모정〉과 더불어 이익을 낸 3편중 한편이다. 〈실락원의 별〉 전편은 총 #13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작품의 영화화에 있어서 문학에서 이른 『테-마』의 『모랄』을 정확하게 잡고 이것을 예술미의 감동”¹⁹⁾으로 사람들에게 강렬함을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당대의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강석운과 고영림

19) 유동준, 『영화로 보는 실낙원의 별』, 『경향신문』, 1957.9.28, 석간 4면.

의 치명적인 사랑과 농밀한 감정을 그렸지만 결국은 잘못을 자각하고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도덕적 모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원작과 시나리오의 가장 큰 차이는 작품속의 관념적인 장광설이 영화에서는 제거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안이한 애정모사와 필연성 박약한 사건 진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로서는 보기 드문 상쾌한 템포와 장면전환과 회화로 과한 권태감 없이 관객을 이끌어간다. 옛날 해변가의 『갈 백』은 일품”이라는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는 작품의 결가지들이 다 제거되어 빠른 장면 전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화로 만들어진 김래성의 소설 중 〈실락원의 별〉과 〈별아 내 가슴에〉가 대중의 열렬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화보〉나 〈애인〉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결가지의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점, 아울러 김래성 특유의 교화적이고 사변적인 장광설이 영화에서는 간결하게 처리되어 대중들이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편의 흥행에 힘입어 흥성기감독이 연출하고 김동원과 주중녀가 출연한 후속편 〈실락원의 별(후)〉(1958)은 전편과 달리 흥행에 참패를 했는데 주된 내용은 원작소설에 등장하는 영림의 오빠 영해가 농락한 애리와 석운의 로맨스이다. 석운은 애리와 로맨스로 문단에서 퇴출되는 시련을 당하고 석운의 아내 영옥은 딸 경숙과 나가 수예점을 운영하는데 영림의 오빠가 등장하여 영옥을 유혹하는 것이 후편의 주된 내용이다. 〈실락원의 별〉 후편은 전체적으로 전편의 내용이 지닌 도덕성과는 거리가 먼 상투적인 사건이 진행되다가 결국은 석운이 가정이 낙원임을 주장하며 조강지처인 옥영에게 돌아간다는 지극히 뻔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작의 성공에 힘입어 제작되었으나 전작에서 보여주었던 내용과는 다른 안이한 결말과 사건으로 관객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그로 인해 2천만환의 적자를 남긴 영화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3. 문화콘텐츠로서 50년대 대중소설의 특성

3-1. 현실의 재현, 현실의 소거

해방 후 영화의 원작이 된 최초의 대중소설 『자유부인』은 신문에 연재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을 끌었다. 교수부인과 춤바람이라는 선정적인 소재가 장안의 화제를 만들었고, 작품 안에 반영된 당대의 다양한 세태가 대중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1954년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서울신문』 연재시의 인기는 단행본으로 출간된 후에도 계속되어 영화의 원작이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비단 정비석의 작품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김래성의 1950년대의 작품들도 연재소설에서 단행본으로 동시에 영화로 가는 수순을 밟았다. 영화화된 〈인생화보〉, 〈애인〉, 〈실낙원의 별〉, 〈별아 내 가슴에〉 등이 다 그러하다.

이 작품들이 대중소설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영화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작품들을 만들었던 한형모나 홍성기 같은 새로운 신예감독의 감각과 안목이 한몫을 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를 전후하여 등장하였고 영화의 대중성에 주목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던 이들은 누구보다 50년대의 신문소설의 영화화경향을 놓치지 않았”²⁰⁾고, 그중에서도

20) 변재란, 『1950년대 감독연구 - 홍성기 감독의 신문소설의 영화화 경향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20, 한국 영화학회, 2002, 185쪽.

김래성의 대중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를 만들었던 “홍성기는 신선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새로운 한국영화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전 근대적인 한국 멜로드라마 영화에 새바람”²¹⁾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대중소설의 영화화 바람은 30년대의 대표적 대중소설이었던 박계주의 『순애보』, 방인근의 『화심』같은 작품도 영화화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작품이 이시기 영화의 원작콘텐츠로 쓰일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일반적으로 대중소설은 당대인들의 욕망이나 현실세태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은 그 안에 많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소설의 영화화 과정에서 대중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작품 안에 그려진 다양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이다. 그런데 소설이 영화화되면서 드러나는 소설과 영화의 현저한 차이는 당대 대중의 다양한 세태가 디테일하게 재현되어 있지만 현실의 문제는 철저하게 소거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유부인』의 경우 소설은 당대 세도를 떨치던 고위관료의 부정이나 부패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반면 영화는 현실적인 세태비판이나 사회적 모습 같은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

〈자유부인〉 외에 〈순애보〉, 〈화심〉, 〈인생화보〉 등도 그러하다. 〈순애보〉는 소설과 달리 이야기의 서사가 종교적인 이야기로 변화하면서 영화 안에는 어떤 현실의 이야기도 드러나지 않는다. 〈화심〉 역시 기생화심의 변화가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서 연유하는 것이지만 영화는 그러한 문제에 천착하지 않는다. 김래성이 작품에서 현실을 그리고 있는 방식은 작품이 발표된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1952년 1월부터 『평화신문』에 발표되었던 『인생화보』는 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내려오는 와

21) 변재란 앞의 글, 185쪽.

중에 돈가방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애립의 가족과 그 돈가방을 주워 잘 살게 된 신형우 일가의 삶의 대비를 통해 전쟁이 가져온 참상과 돈으로 인한 인간 삶의 변화를 리얼하게 그리고 있다.

그러나 영화의 경우 그러한 현실은 소거된 채 애립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양공주라는 오해를 받는다는 정도로만 그려질 뿐이다. 그것도 형우의 돈가방을 가져가는 것을 본 동욱의 입을 통해서 나온 기표일 뿐이다. 그나마 작품 속 주인공들이 밭 딛고 있는 현실은 〈애인〉이나 〈실낙원의 별〉에 와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영화의 핵심적인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고민, 현실이 아니라 오직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설과 영화화 된 작품 간에 현실을 다루는 방법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것은 영화가 이야기를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 중심서사를 부각하고 주변서사를 간략하게 만들면서 작가적인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였기 때문에 소설에서 보이는 현실에 대한 묘사나 생각 같은 작가적 개입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2. 선정성과 관음적 황홀경의 조화

50년대 대중에게 정비석의 『자유부인』이 소구된 지점은 작품 안에 들어있는 대중소설 특유의 에로티즘적인 욕망이나 선정성,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을 대리체험하는 것들이다. “신문소설을 통해 사회적인 논란거리를 제공하면서 대중적 담론장의 중심”²²⁾에 서있었던 정비석은 작품 안에 당대의 새로운 문물과 변화하는 취향, 사회적인 의제들을 던짐으로써 대중들을 열광시켰다. 특히 등장인물들의 원초적인 욕망에 대한 분출이나 새롭고 서구적인 문화에 대한 대중들의 매혹은 그것

22) 이선미, 「공론장과 '마이네리티 리포트」, 『대중서사연구』 26, 2011.12, 145면.

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통해 더욱 증대하였고 대중을 서구적인 문화와 취향에 길들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비석의 『자유부인』에서 평범한 가정주부 오선영이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고 춤바람이 나면서 경험하는 새로운 양풍의 문화는 대중에게 색다른 경험을 하게했고, 젊은 대학생과의 연애 나아가 자유로운 여성으로서의 삶을 구가하는 듯한 모습에 충분히 열광하였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화면을 통해 구현된 서구적인 공간이나 문화는 대중의 서구문화 취향에 영향을 미쳤고 전쟁 후 서구적인 문물과 문화를 소화하던 대중에게 황홀한 볼거리로 작용했다. 소설과 영화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던 댄스 열풍은 대중이 “댄스를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표현으로 정당화”²³⁾ 한다고 할 만큼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와 함께 대중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댄스홀, 그릴, 호텔, 다방, 카페 등 사고모임과 사회적 공문장으로서의 공간은 대중소설에서는 빠질 수 없는 공간이다. 『자유부인』에 등장하는 댄스홀은 영화화 되면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공간이다. 화려한 무희와 서구적인 악단, 그리고 서구적인 옷차림으로 댄스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 이 시기 대중소설에 등장한 당대의 문화적 공간은 그에 대한 묘사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영화라는 입체적 화면에서 댄스홀은 대중의 마음을 금방 사로잡는 매혹적인 공간으로 변화한다. 『순애보』 역시 송림 속의 레스토랑, 백화점, 골프장 등 현대적인 공간이 등장하지만 영화 〈순애보〉에서는 에어 걸인 인순이를 통해 화려하고 변화한 홍콩, 마닐라 같은 공간을 카메라 앵글 안으로 불러들여 대중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국적인 문물과 공간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한다. 『인생화보』에서 애림이 형식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양식의 2층집 댄스홀의 호화로운 광경이나 『애

23) 주창윤, 「1950년대중반 댄스 열풍」, 『한국언문학보』 53, 2009.4, 293쪽

인』에서 지운과 석란이 신혼여행을 간 혼천장의 댄스홀, 주인공 석란의 어머니가 경영하는 요리집 식도락의 댄스홀 등은 당대 대중이 욕망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대중은 그것을 보면서 현실에서는 보지 못한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을 통해 삶의 위로를 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홀안은 축화 화환과 오색의 등불로 휘황찬란했다. 밴드가 있는 스테이지 후면에는 츠렁츠렁 늘어진 검정 비로드 장막을 배경으로 하여 『꿈의 전당 애리자』라는 일루미네이션이 작렬된 정열처럼 새빨강계 타고르고 있었다. 더 넓은 무도장을 중심으로 한 좌우 객석에는 한성 양조의 특급주 『백부용』을 위시하여 양주와 맥주가 홍수처럼 범람했고 흰 가운을 입은 보이들이 음식 쟁반을 들고 분주하게 오락가락했다.²⁴⁾

『실락원의 별』에 등장하는 하는 팜프파탈적 인물 애리가 경영하는 ‘애리자’라는 댄스 홀은 큰 규모의 화려함이 가득한 공간이다. 그곳에서 즐기는 군상의 모습은 소설이 영화화되면서 대중들에게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했을 것이다. 댄스홀 장면의 진수를 보여준 〈자유부인〉 이후 대중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는 이러한 근대적 공간과 그 공간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애욕과 이채로운 모습은 대중에게 새로운 문화를 간접체험을 하게 한 중요한 요소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3-3. 새로운 애정윤리의 등장과 기부장적 질서로의 귀결

정비석의 『자유부인』이 발표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유 중 하나는 주인공 오선영을 통해 기부장적 질곡을 빠져나와 자유의지에 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여성들의 바람과 원망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해도

24) 김래성, 『실락원의 별』 중, 삼성문화사, 1983, 547-548쪽.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 시대에 여성의 권리 주장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다. 선영이 양품점에서 일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여성으로서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선영은 신춘호, 한태석과 성적방종과 부정, 불륜에 가까운 행위 끝에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결국에는 가정이 자신의 자유를 지켜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가부장적 질서를 회복하는데, 영화는 한발 더 나아가 가부장적 질서에서 추방된 어머니 자식이라는 존재로 인하여 그 질서 안에 편입될 수 있다는 새로운 모성신화와 함께 가부장적인 질서의 옹호와 공고화를 보여준다.

김래성은 정비석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새로운 애정의 윤리를 그리고 있다. 『애인』이나 『실락원의 별』은 숭고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연애와 애정을 그리고 있다. 숭고하고 순수한 사랑을 위해 『애인』의 주인공 들처럼 목숨을 바치기도, 『실락원의 별』의 주인공 강석운과 고영림처럼 계산없는 열정적인 사랑에 자기의 감정을 자유롭게 맡기기도 하며 그 사랑의 결과에 승복한다.

“여자의 불안정한 자유처럼 허무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여자란 역시 자유보다도 탐탁한 속박 속에서 참다운 행복을 발하는 동물이 아니요? 이브의 타협처럼.....”

“그렇는지도 모르지. 네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그놈의 난봉이 밍기는 했으나 이즈음처럼 마음이 허술하지는 않았으니까.....”

“뜨내기 애정은 모르지만 여자의 참다운 애정은 역시 남자의 탐탁한 속박과 보호 속에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요?”²⁵⁾

25) 김래성, 『애인』 하, 삼성출판사, 1983, 646쪽.

『애인』은 자유분방한 명동형 인물인 석란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주장하고 자유로운 행동을 향유하는 인물을 보여준다. 남자에게 구속되지 않겠다는 생각과 의견이 분명한 석란은 그러나 지운과의 신혼여행 중 박준모라는 인물의 유혹에 넘어가 성적 방종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남편 지운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결혼 생활의 파탄을 맞은 후 석란은 구속을 벗어난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여자의 참다운 애정을 남자의 탐탁한 속박과 보호에서 찾는 기존의 모랄을 벗어나지 못한 모순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운과 영심을 통해 결혼을 했지만 사랑없는 결혼을 부정하며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지고지순한 사랑에 방점을 찍는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김래성은 『실낙원의 별』에서 강석운의 아내 김옥영의 입을 통해 『자유부인』이 가지고 있는 모성신화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경하는 남편과의 진실한 사랑을 믿었던 김옥영은 남편 강석운이 가족과 명예 모든 것을 버리고 여대생 고영림과 애정의 도피행각을 떠나자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킬 것을 권유하는 시부모에게 아이들보다 남편과의 애정이 중요하며, 애정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것에 대한 배반감으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간다. 물론 결말에 이르러 김옥영은 아이들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지만 어미로서 혹은 가정을 가진 인물로서가 아니라 순전한 여성 자신의 주체적인 결정에 의해 집을 나가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다른 대중소설에서 보기 힘든 사뭇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결국, 석운은 가정이 자신의 낙원이었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애정의 도피행각을 벌였던 인물들이 가정과 자식에 대한 책임이라는 기존의 인습을 넘어서지 못하고 고통을 받다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가부장적 질서로의 귀결이라는 결말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3-4. 문학콘텐츠에서 문화 콘텐츠로

일반적으로 대중소설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통속적인 욕망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그리고 대중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지리멸렬한 현실을 잊기 위해 대중소설 속에서 보여주는 낭만적인 환상에 기꺼이 몸을 맡긴다. 전쟁 이후 대중소설은 전후의 참상이나 인간실존의 괴로움과는 전혀 거리가 먼 화려하고 이국적이며 새로운 문화와 분위기에 가득한 이야기 속에서 현실을 잊고 몸과 마음을 욕망에 맡긴다. 정비석의 『자유부인』이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대중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것은 당대 대중들의 그러한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로 만들어져 대중들로부터 열광적인 사랑을 받았고 무려 10만 명이상이 관람한, 당시로서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 이러한 인기로 『자유부인』은 단행본 출간 직후 극단 신희에서 한노단 각색, 이해랑 연출의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고²⁶⁾ 영화화되면서 지속적으로 화제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1957년에는 김화랑 감독이 연출한 〈속 자유부인〉이, 69년(강대진), 81년(박호태), 90년(박호재)에도 〈자유부인〉 제명의 영화가 제작되었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자유부인’ 제명의 영화 외에도 1971년 11월 1일 국제극장에서 개봉하여 17,056명의 관객을 동원한 안개부인(신성일, 윤정희 주연)은 남편의 바람에 맞바람으로 대응한 부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자유부인〉 이후 부부애의 새 행태를 그린다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품의 등장 역시 『자유부인』의 영향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26) 변재란, 『한국영화사에서 여성관객의 영화관람 경험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57쪽

27) 강옥희, 『대중문화 콘텐츠로서 정비석의 『자유부인』 연구』, 341쪽. 한편, 2010년 무용공연으로 만들어진 〈2010 『자유부인』〉(변혁 감독)은 1950년대의 대중소설이 지닌

김래성의 『인생화보』, 『애인』, 『실락원이 별』 역시 여러 번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정비석이나 김래성 작품이 시대마다 지속적인 매체 전환과정을 거쳐 대중들에게 향유된 것은 1950년대의 대중소설이 흥미로운 대중문화콘텐츠의 원천 소스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란 대중 소비문화의 산물로 대중의 유희적 소비욕구에 맞춰 문화 혹은 문화원형을 원천 소스로 하여 기획 생산된 창조적 내용물, 특히 다양한 미디어에 담기는 문화적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문화 콘텐츠로는 문학,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에듀테인먼트, 테마파크 축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중 소비문화의 중심 기반을 이루고 있는 콘텐츠들이다.²⁸⁾

콘텐츠로서 1950년대의 대중소설은 신문연재 - 영화 - 드라마로의 매체 전환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자유부인』은 해방 이후 OSMU(One Source Multi Use)로 중요한 획은 그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OSMU(원소스멀티유즈)란 하나의 소재를 다른 장르에 적용하여 파급효과를 노리는 전략으로 문화산업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각 문화 상품의 장르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매체 간 이동이 용이해짐에 따라 하나의 소재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서의 시너지효과를 노리는 것을 말한다.²⁹⁾ 그동안 살펴본 1950년대의 대중소설이 신문연재 이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연극으로 영화로 드라마로 심지어 무용공연으로까지 만들어 질 수 있었던 이유는 통속적이라고 치부되었지만 이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대중적인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콘텐츠로서의 무한한 파급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8) 류은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제 14호, 2010, 236쪽.

29) 송원찬 외 3, 『문화콘텐츠 그 유쾌한 상상력』, 북코리아, 2010, 17쪽.

문학텍스트를 영화 등의 대중적인 매체로 변환하는 이유는 그 작품을 수용하는 수용자의 논리가 중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중문화 콘텐츠로서 작품의 가치를 논할 때 대중성은 중요한 논거가 된다. 대중성의 문제는 영화가 문화인 동시에 산업인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중성, 즉 대중에게 어필한 흥행요소에 대한 분석은 대중의 욕망과 문화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³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논의한 1950년대 대중소설의 대중성은 이국적이고 서구적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체험과 물질적인 소비욕망, 자본주의적 출판 메커니즘과 기업적인 상업성을 지닌 영화를 통해 전쟁의 참화를 외면하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한 욕망이 투영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유부인』에서 보이는 미국영화를 통한 근대적 체험, 미군의 문화를 통해 흘러나온 댄스문화, 전후 남성의 부재로 인해 가정경제를 담당해야했던 아프레 결과 여성 노동력의 사회진출, 새로운 애정윤리 등이 다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 대중소설은 발흥기 근대의 도시체험으로 독자들을 매혹하였고, 해방 후의 대중소설은 미군을 통해 들어온 미제 물건과 댄스로 대표되는 향락과 퇴폐를 서구문화에 대한 낭만과 동경으로 치환하여 독자들을 끌어들이었다.

이러한 여러 요소가 1950년대 대중소설이 강렬한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영화적 텍스트로 전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기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OSMU의 대중문화콘텐츠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0) 류은영, 『비평에서 리터러시로』, 『세계문화비교연구』, 2012, 봄호, 361쪽.

4. 결론을 대신하여

1950년대의 대중소설은 영화산업의 융성으로 인한 영화의 부상으로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으나 영화의 원작으로서 대중들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된다. 영화산업의 지형변화는 영화 제작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영화소재를 구하게 했고, 물밑 듯 들어오는 미국문화의 홍수 속에서 댄스열풍과 여성의 사회적 일탈을 다뤘던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필두로 김래성의 『애인』, 『인생화보』, 『실락원의 별』과 30년대의 대표적인 작품이었던 박계주의 『순애보』, 방인근의 『화심』 등 여러 편의 대중소설을 영화의 원천콘텐츠로 기능하게 하였고 그 작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예영화의 붐과 함께 영화의 원작으로 쓰였던 대중소설들은 당대인들의 욕망이나 현실세태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소설이 영화화되는 과정에서 대중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작품 안에 그려지는 다양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이다. 특히 50년대는 새롭게 수용된 서구의 문화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대중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그런데 소설이 영화화되면서 드러나는 소설과 영화의 현저한 차이는 당대 대중의 다양한 세태가 디테일하게 재현되어 있지만 현실의 문제는 철저하게 소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영화가 이야기를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 중심서사를 부각하고 주변서사를 간략하게 만들면서 작가적인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50년대 대중에게 대중소설이 소구된 지점은 작품 안에 들어 있는 대중소설 특유의 에로티즘적인 욕망이나 선정성,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을 대리체험 하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정비석의 작

품은 작품 안에 당대의 새로운 문물과 변화하는 취향, 새로운 사회적인 의제들을 던짐으로써 대중들을 열광시켰다. 등장인물들의 원초적인 욕망에 대한 분출이나 새롭고 서구적인 문화에 대한 대중의 매혹은 그것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통해 더욱 증대되었고 대중을 서구적인 문화와 취향에 길들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화면을 통해 구현된 서구적인 공간이나 문화는 대중의 서구문화 취향에 영향을 미쳤고 전쟁 후 서구적인 문물과 문화를 소화하던 대중에게 황홀한 볼거리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댄스홀, 그릴, 호텔, 다방, 카페 등 사고모임과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공간은 대중소설에서는 빠질 수 없는 공간이다. 화려한 무희와 서구적인 악단, 그리고 서구적인 옷차림으로 댄스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 이 시기 대중소설에 등장한 당대의 문화적 공간은 그에 대한 묘사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영화라는 입체적 화면에서 댄스홀은 대중의 마음을 금방 사로잡는 매혹적인 공간으로 변화한다. 또한 홍콩, 마닐라 같은 이국적인 공간을 카메라 앵글 안으로 불러들여 대중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국적인 문물과 공간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하는데 대중은 그것을 보면서 현실에서는 보지 못한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을 통해 삶의 위로를 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가부장적 질곡을 빠져나와 자유의지에 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여성들의 바람과 원망 또한 잘 드러나 있는데 여성의 권리 주장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귀결은 가정을 자유를 지켜주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가부장적 질서를 회복하는데, 영화는 한발 더 나아가 가부장적 질서에서 추방된 어머니는 자식이라는 존재로 인하여 그 질서 안에 편입될 수 있다는 새로운 모성신화와 함께 가부장적인 질서의

옹호와 광고화를 보여준다. 간혹 모성신화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은 가정과 자식에 대한 책임이라는 기존의 인습을 넘어서지 못하고 고통을 받다 가정으로 돌아오는 가부장적 질서로의 귀결이라는 결말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로서 1950년대의 대중소설은 신문연재 - 영화 - 드라마로의 매체 전환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자유부인』은 해방 이후 OSMU(One Source Multi Use)로 중요한 획은 그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1950년대의 대중소설이 신문연재 이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연극으로 영화로 드라마로 심지어 무용공연으로까지 만들어 질 수 있었던 이유는 통속적이라고 치부되었지만 이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대중적인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논의한 1950년대 대중소설의 대중성은 이국적이고 서구적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체험과 물질적인 소비욕망, 자본주의적 출판 메카니즘과 기업적인 상업성을 지닌 영화를 통해 전쟁의 참화를 외면하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한 욕망이 투영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식민지 시기 대중소설은 발흥기 근대의 도시 체험으로 독자들을 매혹하였고, 해방 후의 대중소설은 미군을 통해 들어온 미제 물건과 댄스로 대표되는 향락과 퇴폐를 서구문화에 대한 낭만과 동경으로 치환하여 독자들을 끌어들이었다.

앞서 살펴본 이러한 요소들이 1950년대 대중소설이 강렬한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영화적 텍스트로 전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기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OSMU의 대중문화콘텐츠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의 문화적 상황을 살펴보면서 유무형의 문화적 요소를 창의적으로 새롭게 기획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산업에서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대중소설의 OSMU(One

Source Multi Use) 가능성은 그 어떤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상매체의 발달과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는 첨단 기술의 결합은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생산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대 소설로부터 시작된 대중소설의 문화콘텐츠로의 전환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후 대중소설 및 현재의 작품까지 온전하게 연구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경향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자유부인』
『순애보』
『화십』
『인생화보』
『애인』
『실락원의 별』

2. 국내외 논저

- 강옥희, 「대중문화 콘텐츠로서 정비석의 『자유부인』 연구」, *반교어문학회*, 2013.2, 319-347쪽.
- _____, 소설 『순애보』와 영화 〈순애보〉 연구, 『한민족 문화연구』 44, 2013.10, 229-258쪽.
- 김수남, 「홍성기의 멜로드라마 영화론」, 『청예논총』 12, 청주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1997, 89-108쪽.
- 류은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제 14호, 2010, 229-263쪽.
- _____, 「비평에서 리터러시로」, 『세계문학비교연구』, 2012, 봄호, 354-384쪽.
- 변재란, 『한국영화사에서 여성관객의 영화관람 경험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_____, 「1950년대 감독연구 - 홍성기 감독의 신문소설의 영화화 경향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20, 한국 영화학회, 2002, 184-209쪽.
- 송원찬 외 3, 『문화콘텐츠 그 유쾌한 상상력』, 북코리아, 2010.
- 양평, 『베스트셀러 이야기』, 우석, 1985.
- 이선미, 「공론장과 ‘마이네리티 리포트」, 『대중서사연구』 26, 2011, 145쪽.
- 주창윤, 「1950년대중반 댄스 열풍」, 『한국언론학보』 53, 2009.4, 277-299쪽.

Abstract

A Study on the Function and Role of Popular Novel as a Culture Content
: Focused on 1950's

Kang, Ok-Hee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ext media by analyzing the narrative constitution of the original works and their 1950s' adapted films, which were based on the original.

The subject works of study include 〈Life in Pictures〉, 〈The Beloved〉, and 〈The Star in the Lost Paradise〉 written by Raesung Kim, 〈Madam Freedom〉 written by Beesuk Jung, 〈The Extreme Love〉 written by Gyejoo Park, and 〈The Heart of Flower〉 written by Ingeun Bang.

Those novels became the original resources of films, and they were tremendously beloved not only as novels but also as its films.

Among these movies, only three remain in the form of its film.

Thus, as for the works preserved in the film,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ilm and its scenario is conducted. Also, when it comes to the other works, through the empirical study and specific analysis, the systematic correlation is examined between the original genre and OSMU(One Source Multi Use) complex contents such as the correlation of motif and the element of popularity. The second investigation is as to its function and role of a popular novel.

Among the subject pieces of study, 〈Madam Freedom〉 written by Beesuk Jung has been the first OSMU (One Source Multi Use)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in 1945, which shows the great value as contents through the text media conversion ranging from a serial novel and a play to a cinema.

It consequently has a great effect on the emergence of movies based on the original popular novel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convert popular novels into movies is the popularity, which is an important indicator to understand the desire of the masses and the contemporary culture.

The popularity of the original resource novels is concerned with the experience

of exotic culture since the Korean Civil War, the desire for consumption, the publishing mechanism of capitalism,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movies.

The popular novels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overall portray exotic experience through American inundated with films; a dance culture flowing out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stationed since the Korean Civil War; après guerre girls who had to take charge of their domestic economy; the entry of women's workforce into society who were substituted for the men's; women's awareness of gender identity; the change in the notion of love; the fetishistic desire for fortunes.

These factors have extremely influenced the conversion from popular novels, the literary text to cinematic text providing extense visual stimulus and have become one of the critical elements and enable OSMU (One Source Multi Use) to be converted into the mass culture contents.

(Key Words: popular novel, OSMU, Life in Pictures, The Extreme Love The Beloved, The Star in the Lost Paradise, The Heart of Flower (Hwashim), experience of exotic culture, media conversion)

Ⅰ 위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7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